

홀덜린의 찬가 「평화축제」

황운석 (서울대)

I

쓰여진 지 150여 년이 지난 1954년에야 비로소 발견되어 시 속의 “축제의 군주”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를 두고 유례없는 논쟁이 일었던¹⁾ 찬가 「평화축제 *Friedensfeier*」는 대략 1802년 혹은 1803년에 그 최종고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프리드리히 홀덜린 Friedrich Hölderlin 후기 찬가의 정점을 이루는 시이다.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801년 2월 9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맺어진 뤼네빌 Lunéville 평화조약인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시인은 이 조약이 맺어진 이후 1801년 7월 14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파리에서 거행되었던 평화축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국내적으로 일단 성공을 거둔 뒤 프랑스는 혁명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주변국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1792년부터 시작된, 오스트리아를 위시한 독일 동맹군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은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다가 1797년의

1) Vgl. Friedrich Beißner: Der Streit um Hölderlins *Friedensfeier*, in: Sinn und Form 7, 1955, S. 621-653; Eduard Lachmann (Hrsg.): Der Streit um den Frieden. Beiträge zur Auseinandersetzung um Hölderlins *Friedensfeier*, Nürnberg 1957; Friedrich Beißner: Rückblick auf den Streit um Hölderlins *Friedensfeier*, in: ders.: Hölderlin. Reden und Aufsätze, Weimar 1961, S. 192-210; Paul W. Maloney: Hölderlins *Friedensfeier*. Rezeption und Deutung, Frankfurt a. M. 1985.

캄포 포르미오 Campo Formio 평화조약을 거쳐 1801년의 뤼네빌 평화조약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였고, 이제 유럽에 새로운 평화질서가 구축될 듯이 보였다. 뢰들린은 뤼네빌 평화조약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는 이 시기 그의 몇몇 편지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뤼네빌 평화조약의 소식을 들은 뢰들린은 누이동생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으로 이곳이 온통 뒤끓고 있는 오늘, 너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을 든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 이 소식을 접하고 내 기분이 어떠한지를 네게 말할 필요가 없겠다. [...] 이제 세상이 잘되어 갈 것이라 믿는다.”²⁾ 비슷한 시기에 친구인 란다우어 Landauer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전쟁과 혁명이 끝남과 함께 저 도덕적인 북풍인 시기의 정신도 끝날 것이고, 오직 딱딱한 시민적 인간교류보다는 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교류가 자라날 것일세.”³⁾ 라고 쓰고 있다. 뢰들린은 시기의 정신이 이제 더 이상 차지할 자리가 없는, “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서 바로 새로이 찾아온 평화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 생각하는 “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교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제 곧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던 1801년 초 하움트빌 Hauptwil의 상인 곤젠바흐 Gonzenbach家에서 새로이 가정교사직을 맡기 위해 뉘르팅엔 Nürtingen을 떠나면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헤어짐에 즈음하여, 표현할 수 없는 조용한, 내 마음의 기쁨을 네 마음속으로도 받아들여다오[...]

우리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이 기쁨 말이다[...]

어떤 하나의 형식, 어떤 하나의 의견이나 주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평화가 주는 가장 본질적인 선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2) Hölderlin: Sämtliche Werke(Große Stuttgarter Ausgabe), Bd 6, hrsg. v. Adolf Beck, Stuttgart 1954, S. 413, Brief 228 vom 23. Feb. 1801. 이후 뢰들린의 편지 인용은 이 판에 의한 편지번호와 쓰인 날짜 및 필요한 경우 수신인을 덧붙여 표시함.

3) Brief 229 vom Ende Feb. 1801.

모든 형태의 이기주의가 사랑과 관용의 성스러운 지배 밑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 공공심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사실,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평화의 축복 밑에서 비로소 독일적인 혼이 싹터 올라, 자라나는 자연처럼 소리도 없이 남모르는 커다란 힘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사실, 내가 뜻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다.⁴⁾

시인이 생각하는 “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교류”는 시기와 이기주의에 근거하는 인간교류가 아니라 사랑과 관용과 공공심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교류인 것이다.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평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본질적인 선물이었다. 여기서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가 단순한 전쟁 종결이나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관용”만이 지배하는 어떤 이상적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의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선언은 “나의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그리스도의 말을 상기시킨다.⁵⁾ 어떤 의미에서든 궁극적 평화가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생각과, 또 그의 다른 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철학적 성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화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를 살펴 보려 한다.

이 시는 총 12연 156행인데, 시인 자신이 자필 원고에서 3연마다 큰 간격을 띄워 3연 1조의 4개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고, 각 조는 정확하게 12행-12행-15행의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시 분석에서 드러나겠지만 제2조와 제3조가 내용상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도 시인의 많은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3부 구성형식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연 순서대로 시를 분석해보자.

II

시는 “사랑하는 손님들”⁶⁾로서의 신들을 맞아,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4) Brief 222 vom Anfang 1801.

5) 마태복음 26-18.

축제를 벌일, '천상의 소리로 가득찬' 호을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1

- 나직이 다시 울려 조용히 변조하는
 천상의 소리로 가득차 있으며
 환기되어 신선하니, 그 옛날 지어진
 행복에 겨운 친숙한 호을이로다. 초록의 양탄자 주위로
 5 기쁨의 구름이 향기를 발한다. 멀리까지 빛을 던지며,
 잘 익은 열매와 황금빛 화환 두른 포도주잔들로 가득차서,
 질서 정연하고 웅대하게 열을 지어
 여기 저기 양 옆에 편편해진 지면 위로
 테이블들이 우뚝 솟아 있다.
 10 사랑하는 손님들이 멀리서
 저녁시간에 이곳으로
 오시기로 했기 때문이다.

2

- 그리고 나는 어슴프레해가는 눈으로 벌써
 진지한 나날의 일에 미소짓는
 15 그분 자신을, 축제의 군주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외국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오랜 영웅적 출정에서 피로해진 양
 당신의 눈을 떨구고, 자신을 잊은 채, 열은 그늘에 싸여,
 친구의 모습을 띤다 하더라도, 만인이 알고 있는 분 당신이시여,
 20 그 지고함이 거의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나이다.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며,
 오직 한 가지만을 알 뿐인즉, 당신은 영원한 존재이시라.
 현자만도 내게 많은 것을 밝혀줄 수 있겠지만

6) "사랑하는 손님들"이 신들을 뜻함은 103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슈미트 Schmidt는 이 시에서의 신들과 인간들의 공동축제의 모델로,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옛 그리스인들의 예배적 축제(Theoxenia)를 들고 있다. Vgl. F. Hölderlin: Sämtliche Werke u. Briefe, 3 Bde, hrsg. v. Jochen Schmidt, Frankfurt 1992, Bd. 1, S. 910. 이하 횡달린의 이 관 인용 및 참조는 SWB라는 약자와 권수 및 면수로만 표시함.

한 분 신 또한 나타나는 곳에서는
정녕 또 다른 명료함이 있으리.

3

- 25 하지만 오늘 그분의 출현이 예고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홍수도 화염도 꺼리지 않은 분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지금,
신들과 인간들이 있는 어디서도 지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마당에.
인간들은 이제야 비로소 그 작업의 소리를 듣되,
30 그것은 오래 전에 준비된 것이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진행된 것이라.
이제 끝없이 저 깊은 곳에서 사라져가면서,
천둥신의 메아리, 천년의 뇌우가 잠을 청하려
윙윙거리며 굴러 내려오기 때문이다, 평화의 소리에 압도되면서.
하지만 그대들 소중한, 오 순결의 시절이여,
35 그대들 오늘도 축제를 가져다주나니, 그대들 사랑하는 시절이여!
하며 이 조용한 저녁에 온누리에 정신이 꽃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고수머리 비록 은회색이라 하더라도
오 친구들이여, 나는 충고하지 않을 수 없네,
회환과 잔치를 준비하라고, 이제 영원한 젊은이들처럼.

1

- Der himmlischen, still wiederklingenden,
Der ruhigwandelnden Töne voll,
Und gelüftet ist der altgebaute,
Seeliggewohnte Saal; um grüne Teppiche duftet
5 Die Freudenwolk' und weithinglänzend stehn,
Gereiftester Früchte voll und goldbekränzter Kelche,
Wohlangeordnet, eine prächtige Reihe,
Zur Seite da und dort aufsteigend über dem
Geebneten Boden die Tische.
10 Denn ferne kommend haben
Hierher, zur Abendstunde,
Sich liebende Gäste beschieden.

2

- Und dämmernden Auges denk' ich schon,
 Vom ernsten Tagwerk lächelnd,
 15 Ihn selbst zu sehn, den Fürsten des Fests.
 Doch wenn du schon dein Ausland gern verläugnest,
 Und als vom langen Heldenzuge müd,
 Dein Auge senkst, vergessen, leichtbeschattet,
 Und Freundesgestalt annimmst, du Allbekannter, doch
 20 Beugt fast die Knie das Hohe. Nichts vor dir,
 Nur Eines weiß ich, Sterbliches bist du nicht.
 Ein Weiser mag mir manches erhellen; wo aber
 Ein Gott noch auch erscheint,
 Da ist doch andere Klarheit.

3

- 25 Von heute aber nicht, nicht unverkündet ist er:
 Und einer, der nicht Fluth noch Flamme gescheuet,
 Erstaunet, da es stille worden, umsonst nicht, jezt,
 Da Herrschaft nirgend ist zu sehn bei Geistern und Menschen.
 Das ist, sie hören das Werk,
 30 Längst vorbereitend, von Morgen nach Abend, jezt erst,
 Denn unermesslich braußt, in der Tiefe verhallend,
 Des Donnerers Echo, das tausendjährige Wetter,
 Zu schlafen, übertönt von Friedenslauten, hinunter.
 Ihr aber, theuergewordne, o ihr Tage der Unschuld,
 35 Ihr bringt auch heute das Fest, ihr Lieben! und es blüht
 Rings abendlich der Geist in dieser Stille:
 Und rathen muß ich, und wäre silbergrau
 Die Locke, o ihr Freunde!
 Für Kränze zu sorgen und Mahl, jezt ewigen Jünglingen ähnlich.⁷⁾

7) Hölderlin: Sämtliche Werke(Große Stuttgarter Ausgabe), Bd. 3, hrsg. v. Friedrich Beißner, Stuttgart 1957. S. 533 f. 이하 뢰탈린의 이 판 인용 및 참조는 GSA라는 약자와 권수 및 면수로만 표시함. 「평화축제 *Friedensfeier*」는 3권의 S. 531~538에 수록되어 있음.

축제가 벌어질 호울은 한바탕 뇌우가 지나간 뒤 즐거운 새소리 들리는 신선한 자연에 다름 아니다. 초록의 풀밭(“초록의 양탄자”)에선 고운 아지랑이(“기쁨의 구름”)가 피어오르고, 양 옆으로 웅대하게 열을 지어 우뚝 솟아 있는 산들이 테이블이요, 여기 저기 보이는 과수원과 포도원들이 잘 익은 열매이며 포도주잔들이다. 포도주잔들이 황금빛 화환을 두르고 있음은 잎이 누래진 가을 포도원을 두고 말함이라. 시인은 은유와 환유 Metonymie를 써서 대자연이 바로 잔치가 벌어질 호울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곳으로 신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다.

제2연에서 시인은 벌써, 진지하게 인류역사(“나날의 일”, “영웅적 출정”)를 이끌어 오다가 이제 역사의 종말에(“저녁 시간”) 이르러 지상을 찾은 “축제의 군주”⁸⁾를 보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그러나 축제의 군주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원래의 그의 고향인 천상세계가 거꾸로 “외국”이 된다.⁹⁾ 그는 자신의 신적 본질을 잊은 채, 이러한 그의 “외국”을 부정하고, 인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열은 그늘에 싸여”¹⁰⁾ “친구의 모습”을 띠지만, 신적 지고함을 감출 수 없어 인간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그러기에 아무리 현자라도 인간은 제한된 지식밖에 가질 수 없음에 비해,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는 신적 “명료함”을 갖는다.

8) 이 시가 발견된 직후 “축제의 군주”가 누구인가를 두고 유례없는 논쟁이 일어났다(註1 참조). 나폴레옹으로(Kerényi, Allemann), 그리스도로(Buhr, Lachmann), 디오니소스로(Mommsen), 하느님 아버지(Hof), 또는 평화의 신으로(Binder), 민족의 창조적 정신(Beißner) 등으로 주장되었다. 여기서는 훔덜린의 시에서의 ‘der Fürst’라는 단어가 갖는 그 어원적 의미(der Erste, der Vorderste)를 존중하여 축제의 제일인자, 즉 축제의 주도자로 해석한다. 이 축제가 신들과 인간들의 공동축제임을 감안하면 축제의 제일인자는 어떤 의미에서든 “최고 신”이 될 것이다.

9) Vgl. Paul W. Maloney: Hölderlins *Friedensfeier*. Rezeption und Deutung, Frankfurt 1985, S. 62.

10) 광휘를 발하는 신적인 모습 그대로를 인간이 볼 수 없다는 구약 성경적 발상 (출애굽기 3-6, 33-20)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3연에서는 “축제의 군주”의 출현이 이미 예고된 것임을 노래한다. 다만 인간들이 깨닫고 있지 못했을 따름이다. 그리스에서 서양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진행되어온 인류역사로서의 “천년의 뇌우”도, 신에 의해 인간들에게 내려진 시련으로서의 “홍수도 화염도”¹¹⁾ 역사의 종말에 찾아올 “평화”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갑자기 찾아든 정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공연한 일이 아님은, 이로써 비로소 신의 작업(“나날의 일”)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신의 출현에 대해 인간들의 눈과 귀가 뜨이기 때문이다. 다가오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눈앞에 하고, 시인은 어린시절(“순결의 시절”)의 평화롭고 조용했던 일요축제를 상기하는 것 같다. 마치 이미 시간이 지양된 신들의 경지(“영원한 젊은이들처럼”)에 이르러 있거나 한 것처럼 잔치준비를 하라는 충고로 시의 제1부를 끝낸다. 이 잔치 모티브는 제1연과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축제”가 제1부의 주 모티브임이 분명해진다.

III

제2부의 전반부인 제4, 5, 6연에서는 축제에 찾아올 가장 중요한 손님중의 한 분으로, 비록 그 이름을 분명하게 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암시로 미루어 그리스도임이 분명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4

- 40 그리고 나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 하지만 오 당신은,
당신은 친절하고도 진지하게 인간을 좋아했고
도사가 지척에 있었던 거기 시리아의 야자수 아래
우물가에 가까이 머무르셨다.
곡식밭이 사방에서 살랑거렸고
- 45 신성한 산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사랑하는 친구들 역시 신의 있는 구름때 되어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워, 그 거룩하고도 대담한 당신의

11) 홍수와 화염은 신적 전능의 표식이다(시편 66-12, 이사야 43-2 참조).

빛줄기가 황야를 거치며 부드러워져 인간에게 이르렀다, 오 젊은이여!
 아! 하지만 당신의 말씀도중에 더 어두운 그들이 당신에게
 50 드리워졌으니, 가차없는 치명적인 불행이러라. 그렇게
 모든 천상의 것은 재빨리 사라져버리되, 공연한 일 아니다.

5

왜냐하면 한 분 신은 언제나 적도(適度)를 아시고
 인간을 아껴 오직 한 순간만 예기치 않게 그 주거를
 건드리시기 때문이다. 하며 언제가 될지 누가 알랴?
 55 또한 그리고나면 뻔뻔스러운 것이 성스러운 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고,
 야만적인 것이 멀리 끝자락에서부터 성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을 수 없으니, 거칠게 만지면서 망상을 행하다간
 뒤이어 운명을 만난다. 하지만 감사는
 결코 신이 주신 선물을 곧바로 뒤따르지 않는다.
 60 그 선물은 깊이 음미하고서야 움켜잡을 수 있다.
 또한 주시는 분이 면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미 오래 전에 우리 아궁이 위에 내린 축복이
 지붕에도 바닥에도 불을 붙였을 것이다.

6

하지만 우리는 신적인 것을 많이도
 65 받았다. 불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고, 해안과 바닷물의 밀려움이 그러하다.
 인간들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저 이방(異邦)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까이한다.
 그리고 그대 눈앞에 있는 성신(星辰)이 그대에게
 70 가르침을 주지만, 그대는 결코 성신과 같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원기 넘치는 분 계서, 그분에게서
 많은 기쁨과 노래가 흘러나왔으니,
 어떤 이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는 조용히 막강한 분이시리,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를 알아본다.
 75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있는 지금에야,
 그리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
 지고의 정신, 세계의

정신이 인간들에게로 마음을 기울인 지금에야.

4

- 40 Und manchen möcht' ich laden, aber o du,
 Der freundlichest den Menschen zugethan,
 Dort unter syrischer Palme,
 Wo nahe lag die Stadt, am Brunnen gerne war;
 Das Kornfeld rauschte rings, still athmete die Kühlung
 45 Vom Schatten des geweihten Gebirges,
 Und die lieben Freunde, das treue Gewölk,
 Umschatteten dich auch, damit der heiligkühne
 Durch Wildniß mild dein Stral zu Menschen kam, o Jüngling!
 Ach! aber dunkler umschattete, mitten im Wort, dich
 50 Furchtbarentscheidend ein tödtlich Verhängniß. So ist schnell
 Vergänglich alles Himmlische; aber umsonst nicht;

5

- Denn schonend rührt des Maases allzeit kundig
 Nur einen Augenblick die Wohnungen der Menschen
 Ein Gott an, unversehn, und keiner weiß es, wenn?
 55 Auch darf alsdann das Freche drüber gehn,
 Und kommen muß zum heiligen Ort das Wilde
 Von Enden fern, übt rauhbetastend den Wahn,
 Und trifft daran ein Schiksaal, aber Dank,
 Nie folgt der gleich hernach dem gottgegebenen Geschenke;
 60 Tiefprüfend ist es zu fassen.
 Auch wär' uns, sparte der Gebende nicht
 Schon längst vom Seegen des Heerds
 Uns Gipfel und Boden entzündet.

6

- Des Göttlichen aber empfiengen wir
 65 Doch viel. Es ward die Flamm' uns
 In die Hände gegeben, und Ufer und Meersfluth.

- Viel mehr, denn menschlicher Weise
 Sind jene mit uns, die fremden Kräfte, vertrauet.
 Und es lehret Gestirn dich, das
 70 Vor Augen dir ist, doch nimmer kannst du ihm gleichen.
 Vom Allebendigen aber, von dem
 Viel Freuden sind und Gesänge,
 Ist einer ein Sohn, ein Ruhigmächtiger ist er,
 Und nun erkennen wir ihn,
 75 Nun, da wir kennen den Vater
 Und Feiertage zu halten
 Der hohe, der Geist
 Der Welt sich zu Menschen geneigt hat.

시인은 이 축제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한다. 그 중에서도 빠져서는 안될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는 “그들이 애착을 갖는 / 가장 사랑하는 분”¹²⁾이기 때문이다. 신들 모두를 이 축제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왕립이 필수적인 것이다.¹³⁾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시카르 Sichar시 성벽 밖 우물가¹⁴⁾ (“도시가 지척에 있었던 [...]

12) Vgl. v. 108 f.

13) 그리스도 역시 이 축제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여기서는 분명히 노래되고 있지 않지만, 제9연에 가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40행의 “하지만 오 당신은 aber o du”이라는 구절에서의 “하지만”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훔덜린 문체의 전형적 특징의 하나인 이른바 “딱딱한 문체 harte Fügung”로 간주하여 제49행의 “아! 하지만”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이스너 Beißner는 이 ‘aber’의 의미를 그리스도 초대에 대한 시인의 망설임(Vgl. GSA, Bd 3, S. 560)으로 해석하고, “축제의 군주”를 그리스도로 보는 뤼더스 Detlev Lüders는 그리스도가 이미 제2연에서 와 있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특별히 또 초대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에 비해 (Vgl. Hölderlin: Sämtliche Gedichte, hrsg. u. komm. von Detlev Lüders, Bad Homburg v. d. H 1970, Bd. 2, S. 316), 슈미트 Jochen Schmidt는 이 부분을 “딱딱한 문체”로 보고 있다(Vgl. Jochen Schmidt: Hölderlins geschichtsphilosophische Hymnen *Friedensfeier - Der Einzige - Patmos*, Darmstadt 1990, S. 30).

14) 요한복음 4-5 이하 참조.

야자수 아래 / 우물가”)의 암시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소가 있었던 가리침 산 Garizim(“신성한 산”)¹⁵⁾의 암시나, 그리스도의 이른 죽음을 나타내는 “치명적인 불행”(v. 50) 등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 그들을 드리워주는 것(“사랑하는 친구들 역시 신의 있는 구름때 되어 /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워” v. 46 f.)은 신적 광휘가 인간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그 강렬한 빛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¹⁶⁾ 시인은 이러한 그리스도 역시 “치명적인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공연한 일이 아니라고 노래한다. 그것은 인류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한 과정이요, 신성의 충만을 오래 견뎌낼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신의 배려인 것이다.¹⁷⁾

제5연에서는 신¹⁸⁾의 지상왕림이 “오직 한 순간만” 이루어짐을 노래한다. 그것이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 또한 성경적 발상이다.¹⁹⁾ 신이 한 번 지상을 찾았다가 떠나고 나면, 은폐된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서 갖가지 신 부정적 태도가 나타난다. 신을 모독하고 적대시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는 물론, 단순히 신적인 것을 모르는 “야만적인” 태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의 인간들도 결국엔 “운명을 만난다.” 보다 높은 것의 참다운 인식에 이르게 되고, 야만적인 것을 벗어나 문화가 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이 주신 선물이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문화는 신이 내려주신 선물인 자연을 경험하는 것에서부

15) 요한복음 4-20 이하 참조.

16) Vgl. Anm. 10).

17) Vgl. v. 113 f. der Elegie *Brod und Wein*.

18) 원문의 ‘ein Gott’은 이 시에서 세 번 나타난다. 23행, 54행, 81행이 그것이다. 23행에서는 “축제의 군주”를 두고 말함이 분명하고, 여기 제5연 54행에서는 “언제나 적도(適度)를 아시는” 분으로, 또 단순히 ‘einer’로 표현되고 있는 26행에서는 “홍수도 화염도 꺼리지 않은 분”으로 묘사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이 “한 분 신 ein Gott”은 최고 신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 마태복음 24-42, 44 참조.

터 생겨난다. 인간은 자연(“이방의 세력들”)을 맹목적으로 이용만 하려 하지만, 자연은 오히려 인간에게 스스로를 내어준다. 플라톤은 최초의 인간들이 숫자세기를 배운 것은 성신의 운행으로부터라고 생각했다.²⁰⁾ 즉 인간은 신의 창조물인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성신은 고대에서는 동시에 신적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성신과 같아지려 함은 곧 신에 대한 불손이 될 것이다.

제6연의 후반부에서 4연에서 등장시켰던 그리스도를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제4, 5, 6연이 한 덩어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대들이 나를 알면, 그대들은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안다”(요한복음 14-7)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전이 일어난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 생명의 근원자 (“원기 넘치는 분”)인 아버지를 통해서 비로소 그분의 아들, “조용히 막강한 분”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인류역사 전체를 주도하는 “지고의 정신”이자 “세계의 정신”인 아버지를 완전히 인식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같은 개별 인물의 참다운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때의 인식이라 함은 물론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열린 마음 속으로의 신적인 것의 수용을 의미한다.²¹⁾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때 이른 죽음을 포함한 역사 속의 모든 파괴는 어떤 진실로 의미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이 된다. 여기에 바로 훔덜린의 역사철학적 구상이 드러난다.

IV

시의 제2부의 후반부인 제7, 8, 9연에서는 전반부의 마지막에서 노래된, “인간들에게로 마음을 기울인” “세계의 정신”으로서의 “아버지”라는 모티브를 좀더 자세히 그리면서, “만인회합의 날”(v. 103)로서의 축

20) Vgl. Kommentar von Schmidt zu dieser Stelle, in: SWB, Bd. 1, Gedichte, S. 920 f.

21) Vgl. Jochen Schmidt: Hölderlins geschichtsphilosophische Hymnen, S. 39 f.

제일을 노래한다.

7

- 그분은 오래 전에 시대의 주인이 되기엔 너무 위대하셨고
 80 그분의 땅은 너무도 넓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을 지치게 한 적이 있던가?
 그러나 언젠가는 한 분 신 역시 인간들처럼 나날의 일을
 선택하고 모든 운명을 나누어 가질런지도 모른다.
 운명의 법칙이러라, 만인이 서로를 안다는 것은,
 정적이 다시 찾아들 때면 또한 하나의 언어가 존재하리라는 것은.
 85 그러나 정신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우리 역시 함께 하며
 무엇이 최상의 것인지론 논하리. 하여 이제 내게 최상의 것으로 여겨지는 일 있다면,
 거장이 이제 자신의 상(像)을 완성하고 준비를 끝내는 일이다.
 하며 저 조용한 시대신(神)이 그로 하여 몸소 변용하여
 자신의 작업장에서 걸어나오는 일ियो, 오직 사랑의 법칙만이,
 90 조용히 모든 차이를 없애는 그 법칙만이 여기서부터 하늘끝까지 통용되는 일이다.

8

- 우리가 서로에 대해 들으면서 대화가 된 이래,
 인간은 아침부터 줄곧 많은 것을
 배워왔다. 하지만 우리는 곧 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정신이 펼쳐보이는 시대상(像)은
 95 그분과 다른 분들 사이의 동맹의 표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분과 다른 세력들 사이에 동맹이 맺어져 있는 것이다.
 그분만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은 영원한 분들
 모두를 그 표시로 알아볼 수 있다, 마치 식물에서도
 어머니 대지와 빛과 공기를 알아볼 수 있듯이.
 100 하지만 마침내는, 당신들 신성한 세력들이여, 당신들 향한
 우리 사랑의 표시가, 당신들이 여전히 신성하다는
 증거가 축제일인즉,

9

만인회합의 날이라, 그날엔 천상신들이 기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요, 뇌우속에 몸을 숨기는 것도 아니다.

- 105 오히려 서로간에 공손하게 대하며 노래하면서
 화음을 이루고 조화로운 하나가 되어,
 어떻게 보든 복받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날이요, 그들이 애착을 갖는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함께 있는 날이다. 내가
 110 준비되어 있는 잔치에, 잊을 수 없는 분
 당신을 불렀기 때문이다, 시대의 저녁에 당신을,
 오 젊은이여, 당신을 축제의 군주에게로 불렀다. 하며
 우리 종족이 먼저 잠자리에 들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들 약속된 분들 모두가,
 115 당신들 영원하신 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당신들의 천국소식 전하기 위해
 우리의 집에 오실 때까지는.

7

- Denn längst war der zum Herrn der Zeit zu groß
 80 Und weit aus reichte sein Feld, wann hats ihn aber erschöpfet?
 Einmal mag aber ein Gott auch Tagewerk erwählen,
 Gleich Sterblichen und theilen alles Schiksaal.
 Schiksaalgesez ist diß, daß Alle sich erfahren,
 Daß, wenn die Stille kehrt, auch eine Sprache sei.
 85 Wo aber wirkt der Geist, sind wir auch mit, und streiten,
 Was wohl das Beste sei. So dünkt mir jezt das Beste,
 Wenn nun vollendet sein Bild und fertig ist der Meister,
 Und selbst verklärt davon aus seiner Werkstatt tritt,
 Der stille Gott der Zeit und nur der Liebe Gesez,
 90 Das schónausgleichende gilt von hier an bis zum Himmel.

8

- Viel hat von Morgen an,
 Seit ein Gespräch wir sind und hören voneinander,
 Erfahren der Mensch; bald sind wir aber Gesang.
 Und das Zeitbild, das der große Geist entfaltet,
 95 Ein Zeichen liegts vor uns, daß zwischen ihm und andern

Ein Bündniß zwischen ihm und andern Mächten ist.
 Nicht er allein, die Unerzeugten, Ew'gen
 Sind kennbar alle daran, gleichwie auch an den Pflanzen
 Die Mutter Erde sich und Licht und Luft sich kennt.
 100 Zuletzt ist aber doch, ihr heiligen Mächte, für euch
 Das Liebeszeichen, das Zeugniß
 Daß ihrs noch seiet, der Festtag,

9

Der Allversammelnde, wo Himmlische nicht
 Im Wunder offenbar, noch ungesehn im Wetter,
 105 Wo aber bei Gesang gastfreundlich untereinander
 In Chören gegenwärtig, eine heilige Zahl
 Die Seeligen in jeglicher Weise
 Beisammen sind, und ihr Geliebtestes auch,
 An dem sie hängen, nicht fehlt; denn darum rief ich
 110 Zum Gastmahl, das bereitet ist,
 Dich, Unvergeßlicher, dich, zum Abend der Zeit,
 O Jüngling, dich zum Fürsten des Festes; und eher legt
 Sich schlafen unser Geschlecht nicht,
 Bis ihr Verheißenen all,
 115 All ihr Unsterblichen, uns
 Von eurem Himmel zu sagen,
 Da seid in unserem Hauße.

제7연에서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의 신의 활동을 그린다. “세계의 정신”으로서의 “아버지”가 단순히 한 “시대의 주인”으로 그칠 수는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신²²⁾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들처럼 [...]” v. 81 f.) 지상을 찾아와서 인간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 때는 인류역사의 종결의 시간이요, 역사적 시간의 정지이며, 그런 의미에서 “정적이 다시 찾아들”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에 의한 “운명의 법칙”

22) 원문에서는 “한 분 신 ein Gott”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註 18)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최고 신인 “아버지”로 보아야 한다.

이며, 그 때가 되면 만인이 하나가 되니, 언어도 만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일적 사랑의 언어 하나가 있을 뿐이다. 시인은 이제 그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마당에 가장 바람직한 일은, 인류 역사를 완성한 “거장”으로서, 또한 “조용한 시대 신”²³⁾으로서의 아버지가 자신의 작품(“자신의 상(像)”) ²⁴⁾을 끝내고 “역사적 시간의 공간”²⁵⁾으로서의 “자신의 작업장”에서 걸어 나와 온 세계에 “오직 사랑의 법칙”만이 통용되게 하는 일이다. 절대적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제8, 9연은 월연(越聯)으로 그 내용상의 연결이 강조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신들과 인간들의 관계를 노래한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아침부터”) 인간들과 신들 간에는 많은 교류가 있어왔고 인간들은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으나²⁶⁾ 그것은 “대화”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 축제가 시작되면 곧 “노래”로 바뀔 것이다. “대화”가 다양한 목소리들의 맞부딪힘이라면 “노래”는 통일이요 화음이다. 이제 “위대한 정신”으로서의 “아버지”가 우리 앞에 펼쳐보이는 평화의 “시대상”은 또한 신과 자연의 “다른 세력들” 사이의 “동맹의 표시”가 된다. “다른 세력들”이니 “만들어지지 않은 영원한 분들”이니 하는 표현은 갖가지 자연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니 이로써 시인의 범신론적 관념이 드러난다. 즉 시인은 “동맹의 표시”라는 말로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자신과 인간들 사이의 동맹의 표시로 세우는 무지개²⁷⁾를 암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세력들”과의 동맹을 말함으로써, 기독교적 관념과 범신론적 관념을 함께

23) 격동의 시대가 지나고 평화가 모든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시대의 신도 “조용해”진 것이다.

24) 이 상(像)이라는 말은 “아버지”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서의 인류역사라는 뜻과, 또한 그 작품 속에 투영된 신 자신의 모습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Jost Schillemeit: “... dich zum Fürsten des Festes.” Zum Problem der Auslegung von Hölderlins *Friedensfeier*, in: DVjs, 51(1977), S. 607~627, hier zit. Stelle S. 612.

26) Vgl. v. 64 f.

27) 창세기 9-13 참조.

어우르는 시인의 통합주의적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면서 동시에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벌이는 옛 그리스적 예배적 축제를 이 시에서의 축제의 모델로²⁸⁾ 삼고 있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시인은 “신성한 세력들”에 대한 인간들의 “사랑의 표시”가 곧 축제일이라고 노래한다.

시 전체를 통틀어 정점을 이루는 연이라 할 수 있는 제9연에서 이 축제일이 “만인회합의 날”로 규정됨으로써 그 성격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난다. 이 날에 천상신들은 기적의 형태로나 또는 “몸을 숨기는” 초월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 세계의 내재적 존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신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엔 “그들이 애착을 갖는 / 가장 사랑하는 분”²⁹⁾이요 “잊을 수 없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도 빠질 수 없다. 바로 시인 자신이 이 “젊은이”를 “시대의 저녁에”³⁰⁾ “축제의 군주에게로” 오도록 불렀기 때문이다.³¹⁾ 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명실공히 만인회합의 날이요 만인화합의 날이며 궁극적 평화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인 그리스도의 왕림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시 속에서 이 축제는 결코 이미 실현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 축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며, 실현을 눈앞에 두고 마치 거의 실현된 것인양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제1연과 제9연에서

28) Vgl. Anm. 6).

29) 바이스너는 이 “젊은이”를 바로 그리스도로 보지는 않지만, 이 “젊은이”가 신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존재가 된 것은, 이 “젊은이”가 바로 신들이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중재자이기 때문이라 해석한다(Vgl. Erläuterung zu dieser Stelle in der GSA, Bd. 3, S. 564 ff.).

30) 이 “저녁”은 이 시대의 저녁일 뿐 아니라 인류역사 전체의 저녁이다(Vgl. v. 11).

31) 원문의 이 ‘부르다 rufen’의 뜻을 두고, 바이스너는 ‘ausrufen (berufen)’으로 해석하여 “젊은이”를 “축제의 군주로 초빙한” 것이라 보는 반면(Vgl. Erläuterung zu dieser Stelle in der GSA, Bd. 3, S. 564 ff.), 슈미트는 ‘herberufen’의 뜻으로 해석하여 “젊은이”를 “축제의 군주에게로 불려온” 것이라 본다(Vgl. Kommentar zu dieser Stelle, in: SWB, Bd. 1, S. 926).

그러진 축제일의 모습은 분명히 실현된 축제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미 그려진 모습만으로도 완성된 축제의 모습을 쉽사리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축제실현의 문학적 선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발전에 대한 시인의 사유와 연관시키면 그것은 곧 완성상태에 이른 역사 발전의 문학적 선취가 될 것이다.

V

제2부의 마지막 연인 제9연의 내용이 역사 완성상태의 문학적 선취라면, 시의 마지막 부인 제3부(제10, 11, 12연)에서는 다시 그러한 완성상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표명으로 돌아오면서 지나간 어두운 시대의 혼란과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10

살랑거리는 바람이
 벌써 당신들을 예고하고 있고,
 120 김이 오르는 골짜기가 당신들의 오심을 말하고 있으며,
 아직도 천둥소리로 진동하는 땅이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의 뺨은 희망으로 불그스레해지며,
 집 대문 앞에는
 어머니와 아이가 나와 앉아서
 125 평화를 바라본다.
 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니,
 금빛 광선이 전해준
 예감이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음이요,
 약속이 연세 가장 높으신 분들을 붙들고 있음이다.

11

130 분명 노고는
 위에서부터 준비되고
 실행된, 삶의 양념이리.

- 이제 와선 마음에 안 드는 것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진한 것이
 135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오랫동안 찾던
 황금열매이기 때문이다.
 파괴적인 폭풍만나
 태고적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로되,
 하지만 그 다음엔 가장 사랑하는 재보로서, 신성한 운명 자신에 의해
 140 다정한 무기로 보호받으니,
 천상신들의 모습이로다.

12

- 당신은 암사자처럼 비판했습니다.
 오 어머니시여, 당신이
 자식들을 잃었을 때, 자연이시여.
 145 너무도 사랑하는 이여, 당신에게서 그들을
 당신의 적이 흠쳐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를
 거의 친자식처럼 받아들였고
 사티로스들을 신들과 어울리게 해줬을 때.
 그렇게 당신은 많은 것을 세웠고
 150 또 많은 것을 문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때 이르게
 전능하신 이여, 빛을 보게 해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깨달으시고, 이제야 그것을 그만두십니다.
 155 엄청나게 바쁜 존재가, 성숙할 때까지,
 아무 느낌 없이 저 아래서 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10

- Leichtathmende Lüfte
 Verkünden euch schon,
 120 Euch kündigt das rauchende Thal
 Und der Boden, der vom Wetter noch dröhnet,
 Doch Hoffnung röthet die Wangen,
 Und vor der Thüre des Haußes

Sizt Mutter und Kind,
 125 Und schauet den Frieden
 Und wenige scheinen zu sterben
 Es hält ein Ahnen die Seele,
 Vom goldnen Lichte gesendet,
 Hält ein Versprechen die Ältesten auf.

11

130 Wohl sind die Würze des Lebens,
 Von oben bereitet und auch
 Hinausgeführt, die Mühen.
 Denn Alles gefällt jezt,
 Einfältiges aber
 135 Am meisten, denn die langgesuchte,
 Die goldne Frucht,
 Uraltem Stamm
 In schütternden Stürmen entfallen,
 Dann aber, als liebstes Gut, vom heiligen Schiksaal selbst,
 140 Mit zärtlichen Waffen umschützt,
 Die Gestalt der Himmlischen ist es.

12

Wie die Löwin, hast du geklagt,
 O Mutter, da du sie,
 Natur, die Kinder verloren.
 145 Denn es stahl sie, Allzuliebende, dir
 Dein Feind, da du ihn fast
 Wie die eigenen Söhne genommen,
 Und Satyren die Götter gesellt hast.
 So hast du manches gebaut,
 150 Und manches begraben,
 Denn es haßt dich, was
 Du, vor der Zeit
 Allkräftige, zum Lichte gezogen.

Nun kennest, nun lässest du diß;
 155 Denn gerne fühllos ruht,
 Bis daß es reift, furchtsamgeschäftiges drunten.

천상신들의 지상왕립에 대한 예고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그러하고, “김이 오르는 꼴짜기”가 그러하며, 아직도 땅을 진동하는 “천둥소리”가 그러하다. 희망에 부풀은 사람들이 다가 오고 있는 평화를 보기 위해 대문 앞에 나와 앉는다. “어머니와 아이”라는 이미지는 곧 실현될 궁극적 평화가 마치 독자의 눈앞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³²⁾ 제10연의 마지막 4행은 신체현현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 곧 죽을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늦추어 준다³³⁾고 노래한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들이 겪은 갖가지 시련(“노고”)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의해 준비된 것이었고, “오랫동안 찾던 황금열매”로서의 궁극적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황금열매”는 헤스페루스의 딸들이 지키던 헤라 Hera 여신의 “황금사과”를 암시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다고 믿었던 낙원과 황금시대의 속성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진함” 역시 황금시대의 속성인 것은 그것이 원래의 순수한 자연의 상태이기 때문이다³⁴⁾. 비록 이 “황금열매”가 역사의 “폭풍”을 견디지 못해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재보”이기에, 역사의 어두운 시대에도 언어라는 “다정한 무기”의 보호를 받아³⁵⁾ 인간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황금열매”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곧 천상신들의 지상왕립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될 것이다. “황금열매”가 “천상신들의 모습”과 동일시되는 것

32) Vgl. Kerstin Keller-Loibl: “... gib ein Bleiben im Leben, ein Herz uns wieder.” Der Frieden im Hölderlins Werk, Tübingen 1995, S. 218.

33) 역시 성경적 발상이다. 루가복음 2-25~38 참조.

34) Vgl. Jochen Schmidt: Hölderlins geschichtsphilosophische Hymnen, S. 68.

35) Vgl. Paul W. Maloney: A. a. O. S. 40.

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시의 마지막 연인 제12연도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연이다.³⁶⁾ 연의 첫 부분은 제11연 후반부에서 노래된 “황금열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헤라클레스에 의한 황금사과 강탈의 신화를 자연에 등을 돌린 “인간정신”에 의한 자연의 자식들의 강탈로 변형시켜 놓는다. 이때의 자연의 자식들은 헤시오도스가 「신통기」에서 노래한 대로 대지의 여신 가이아 Gaia의 자식들로서의 신들을 말하겠으나, 이 시 안에서의 시적 연관성에서는 제11연에서 노래된 “천상신들의 모습”으로의 “황금열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대로 “황금열매”는 그 옛날의 “황금시대”, 즉 모든 역사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완성상태의 사회의 속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에서의 황금사과 강탈의 은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뜻하는 바는 자연적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완성상태를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인간정신의 성급한(“때 이른” v. 152) 시도가 된다.³⁷⁾ 자연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정신의 시도에 대해 “어머니 자연”은 “암사자처럼”³⁸⁾ 비판한다. “어머니 자연”은 이제 “적”이 되어 사티로스와 같이 된 인간정신을 자신의 참다운 자식인 신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인간세계에 문화를 일구어 갔다(“많은 것을 세웠고” v.149). 그러나 건설은 파괴(“많은 것을 묻었다” v.150)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성급한 성취욕 때문이었다. “어머니 자연”은 이제야 이러한 반 자연적인 인간정신의 발호가 자신

36) 이 연에서의 자연의 “자식들”과 “적”이 누구를 뜻하는지를 두고 바이스너는 각각 “인간들”과 “불안정의 정신 Geist der Unruh”이라 해석하고 (Vgl. Erläuterung zu dieser Stelle in der GSA, Bd 3, S. 567), 말로니 Maloney는 각각 자연과 분리되기 전의 인간 형태로서의 “사티로스들”과 “특별한 관점에서의 그리스도”로 해석하며 (Vgl. Maloney: A. a. O. S. 41 ff.), 슈미트는 “자식들”을 변형된 황금사과 강탈신화로서의 이 부분에서의 “신들의 모습”(v. 141)으로, 또 “적”을 자연에 등을 돌린 현대적 의식의 모습으로의 “인간정신”으로 해석한다 (Vgl. Kommentar zu dieser Stelle, in: SWB. Bd. 1, S. 931 ff.).

37) Vgl. J. Schmidt: A. a. O., S. 73 f.

38) 파트로클로스의 주검을 앞에 한 아킬레스는 마치 사냥꾼에게 새끼를 빼앗긴 수염 많은 사자처럼 통곡했다(「일리아스」, 18권, 318~320행).

의 탓임을 깨닫고 “너무 때 이르게 빛을 보게 해주는” 일을 중지한다. 신적인 것을 잊은 채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던 인간인 “엄청나게 바쁜 존재”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성숙”을 기다리며 바쁘던 일손을 멈추고 쉬고 싶어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이리라.

시인은 시의 마지막 연인 이 연에서 특히 「일리아스」니, 「신통기」니, 황금사과 신화 등을 암시하면서 고대적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태고적 황금시대를 상기시킨다. 그것은 환상적으로 선취된 곧 다가올 미래의 황금시대를 그린 시의 첫 부분과 연결되면서 시를 구조적으로 완결짓는다. 동시에 역사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완성상태로서의 태고적 황금시대가 역사발전의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질 새로운 완성상태의 예고가 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I

훔덜린이 이 시에서 노래한 평화는 단순한 전쟁종결이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역사발전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지양된 궁극적 평화이다. 즉 그것은 사회내에서의 인간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들간의, 인간과 자연력간의 관계까지도 포함한 절대적 평화이다. 그러기에 그 축제일이 신들까지도 참여하는 “만인회합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 만인회합의 날을 성사시킬 결정적 임무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자연력을 일컫는 “다른 세력들”로서의 신들을 이 축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신들과 인간들간의 중재자로서이다. 여기에 기독교적 관념과 범신론적 관념을 함께 어우르는 시인의 통합주의적 사상이 드러난다.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벌이는 축제가 옛 그리스의 예배적 축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새로운 황금시대는 인류역사 발전의 종말에 찾아오는, 그 옛날의 신화적 황금시대에 비견하는 완성상태를 의미한다. 그 발상은 다분히 목적론적이며 세속화된 종말론적

사변이다.³⁹⁾ 역사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역사를 인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현대적 인간의 요구를 부정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역사발전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발전과정에서의 인간의 역할이 적합하지 않을 때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시인이 생각하는 적합한 인간역할이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에 부합된 정신성의 견지인 것이다. 즉 완성을 향한 인간정신의 노력은 자연에 부합하는 것이어야지, 자연적 연관성을 넘어서 무리하고 성급하게 그러한 완성상태를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들과의 관계가 “대화”를 넘어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 뜻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인이 시의 끝부분에서 암시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점이다.

■ 참고문헌

<1차문헌>

Hölderlin, Friedrich: Sämtliche Werke(Große Stuttgarter Ausgabe),

39) 슈미트는 역사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발상은 훔덜린의 고향인 뷔르템베르크 지방의 경건주의 운동 속에 살아 있던 천년왕국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이 발상은 이상상태가 실현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유토피아적 사상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상 이요, 그것도 완성의 단계를 내세를 위해 유보하는 정통 기독교적 사상과는 배치되는 독일 관념론적 종말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슈미트에게는 역사를 종말시대적 완전성의 관점에서 보는 독일 관념론의 가장 중요한 증언이 된다. Vgl. J. Schmidt: A. a. O., S. 86 ff.

- hrsg. v. Friedrich Beißner, Stuttgart 1943 ff.
- Ders.: Sämtliche Werke(Frankfurter Ausgabe), Historisch-Kritische Ausgabe, hrsg. v. D. E. Sattler, Frankfurt a. M. 1976.
- Ders.: Sämtliche Werke u. Briefe, hrsg. v. Jochen Schmidt, Frankfurt a. M. 1992.
- Ders.: Sämtliche Gedichte, hrsg. v. Detlev Lüders, Bad Homburg v. d. Höhe 1970.

<2차문헌>

- Beißner, Friedrich: Rückblick auf den Streit um Hölderlins *Friedensfeier*, in: ders.: Hölderlin. Reden und Aufsätze, Weimar 1961, S. 192~210.
- Binder, Wolfgang: Hölderlins *Friedensfeier*, in: ders.: Hölderlin-Aufsätze, Frankfurt a. M. 1970, S. 294~326.
- Bröcker, Walter: Hölderlins *Friedensfeier* entstehungsgeschichtlich erklärt(Wissenschaft und Gegenwart 21), Frankfurt a. M. 1960.
- Keller-Loibl, Kerstin: "... gib ein Bleiben im Leben, ein Herz uns wieder." Der Frieden im Hölderlins Werk, Tübingen 1995.
- Kudszus, Winfried: Hölderlins *Friedensfeier*, in: ders.: Sprachverlust und Sinnwandel. Zur späten und spätesten Lyrik Hölderlins, Stuttgart 1969.
- Lepper, Gisbert: Friedrich Hölderlin. Geschichtserfahrung und Utopie in seiner Lyrik, Hildesheim 1972.
- Maloney, Paul W.: Hölderlins *Friedensfeier*. Rezeption und Deutung, Frankfurt a. M. 1985.
- Schillemeit, Jost: "... dich zum Fürsten des Festes." Zum Problem der Auslegung von Hölderlins *Friedensfeier*,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51 (1977), S. 607~627.

- Schmidt, Jochen: Hölderlins geschichtsphilosophische Hymnen
Friedensfeier - Der Einzige - Patmos, Darmstadt 1990.
- Szondi, Peter: Er selbst, der Fürst des Fests. Die Hymne
Friedensfeier, in: ders.: Hölderlin-Studien. Mit einem Traktat
 über philologische Erkenntnis, Frankfurt a. M. 1970, S. 62~92.
- Trenks, Martin: Zur Auslegung der Verse 26~28 der *Friedensfeier*,
 in: Hölderlin-Jahrbuch, 16(1969-70), S. 222~227.
- Unger, Richard: Hölderlin's Major Poetry. The Dialectics of Unity,
 Bloomington(Ind.) 1975.

Zusammenfassung

Hölderlins Hymne *Friedensfeier*

Youn-Sheok Hoang (Seoul National Univ.)

Das Hauptthema der Hymne *Friedensfeier* ist der Frieden. Es ist die erste Aufgabe dieser Arbeit, den wahren Sinn des Friedens in diesem Gedicht zu erarbeiten. Das hängt aber mit der Erhellung des Christusbildes, das in der Hymne nur andeutungsweise dargestellt ist, zusammen. Im Rahmen dieser Arbeit ist es auch wichtig zu erhellen, ob das Gedicht auch geschichtsphilosophisch konzipiert ist wie die anderen des Dichters.

Der Frieden, wovon der Dichter in der Hymne singt, ist keine einfache Beendigung des Kriegszustandes, kein einstweiliger Frieden, sondern endgültiger Frieden, in dem alle Konflikte und Gegensätze, die im Entwicklungsprozeß der Menschheitsgeschichte entstanden sind, aufgehoben sind. Das betrifft nicht nur zwischenmenschliche Beziehungen in der Gesellschaft, sondern auch die Beziehungen zwischen Menschen und Göttern, zwischen Menschen und Naturmächten.

Bei dem "allversammelnden" Friedensfest wird eine tragende Rolle Christus aufgegeben. Er wird nun nicht als Erlöser im christlichen Sinne, sondern als Vermittler zwischen Göttern und Menschen auftreten. Hier zeigt sich der synkretistische Gedanke Hölderlins, in dem christliche und pantheistische Vorstellungen zu einer Einheit verschmelzen.

Der Dichter sieht das neue goldene Zeitalter als bevorstehend.

Dieses Zeitalter als Vollendungszustand, der dem des uralten mythischen Goldenen Zeitalters gleichkommt, kommt erst am Ende der Entwicklung der Menschheitsgeschichte. Diese Konzeption ist in hohem Maß teleologisch und säkularisiert-eschatologisch bestimmt. Alle Geschehnisse im Entwicklungsprozeß der Menschheitsgeschichte sollten nun in der eschatologischen Perspektive betrachtet werden. In diesem Prozeß wird auch von Menschen entsprechendes Verhalten verlangt. Man muß an der naturgemäßen Geistigkeit festhalten, weil die Naturwidrigkeit Unordnungen und Verwirrungen herbeiführt. Die Forderung, daß die Beziehungen der Menschen zu den Göttern nicht bei dem Stadium des "Gesprächs" stehenbleiben, sondern zum "Gesang" entwickelt werden sollten, kann in diesem Sinne verstanden werden. Was der Dichter im Schlußteil des Gedichtes andeuten wollte, scheint gerade das zu sein.